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9년 3월 29일(금) ..(음력 2월 23일).. Пятница 29 марта 2019г. № 12(11682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지난 2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센터에서 <극장은 착한 세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란 역사다큐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와 주 역사고문서보관소가 개최했다. (관련 기사 2면)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 효율적 운영의 우수 자치단체 선정

지방의 우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할린주 정부의 장려금을 받았다. 총장려금은 1억 루블리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효율적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평가할 항목은 100가 넘었다. 이 항목들 중에는 안정적 유치원 운영, 투자 유치량, 사업체 수, 스포츠 시설, 주민 공동센터, 1년간 운영내역 등이 평가되었다.

이번 주초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장들에게 장려금 증서를 수여했다. 2018년 가장 효율적인 활동에 1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차지하여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이 장려금의 50%인 5000만 루블리에 대한 증서를 받았다. 2위는 포로나이스크구역이 30%인 3000만 루블리를, 3위는 네벨스크구역이 20%인 2000만 루블리를 받았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2019년 2개월간 경제지표 발표

2019년 2개월간 주택 건설의 속도가 현저히 증가해 주택 4만 9300m²를 건설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1-2월에 지역 생산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32억 루블리에 달했다. 산업 생산액은 2.3% 증가한 1798억 루블리,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원유 채취량은 8.3% 증가한 330만 톤, 가스는 5.6% 감소한 56억 m³, 석탄은 13% 증가한 160만 톤을 채취했다.

사할린주에 전체적으로 생선통조림, 우유제품, 치즈, 버터, 육류, 일체 가공육, 저지방 제빵, 미네랄수의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우유 생산이 27.4% 증가했다. 가금류의 마릿수는 소 9.7%, 돼지 4.3%, 양계 8.9% 증가했다. 울초 소비시장에서는 도매 무역량은 12.5% 증가, 외식은 6.7% 증가, 소매 무역은 2.9% 증가세를 유지, 유료 서비스는 1.6% 증가했다.

2월 말 등록된 실업률은 0.6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권한 대행으로 알렌코브 임명

주정부는 새 부수상 권한 대행으로 왜체슬라브 알렌코브를 임명했다.

1976년 그로즈니 출생인 그는 모스크바 건축 및 공동경제건설대학을 졸업했으며 <산업 및 민간건설>전공 기술자격증을 획득, 모스크바, 니즈니 뉴고로드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8년 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위치한 <원전건설 수출>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가족: 부인, 딸(2명).

사할린주, 보건 분야에 신건설 프로그램 채택

최근에 사할린 지방을 시찰하며 실태를 파악 중인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의료기관들을 방문하여 낡고, 비현대적인 시설들을 확인한 가운데 2024년까지 사할린주 의료현장의 부족한 문제들, 의료혜택과 접근성,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 프로그램에 따른 49개의 의료대상을 해결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환자들에게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코르사코브중양구역 병원에는 방역관리를 위한 새로운 검역소를 건설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새 건물을 유즈노사할린스크상담진료센터, 안쿠지노브 시병원, 주 병원, 결핵 공중보건소, 홈스키·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돌린스크 구역 병원에 개설할 예정이다. 주 아동병원, 세웨로-쿠릴스크구역 병원과 유즈노-쿠릴스크구역 병원은 새로운 건물로 단장한다. 이외에 지방 구역에 진료소를 비롯한 조산원 시설들 11개를 건설 및 공사할 계획이라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 직업인의 날 기념

3월 25일 전국 직업인의 날을 맞아 주정부 주최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인형극장에서 문화분야의 대표들과 원로들을 초대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오하, 티모브스크, 스미르니 문화기관의 직원들에게 지역 문화발전의 공로를 치하하며 <사할린주 명예문화근로자>칭호 증서와 주정부 표창장을 수여했다. 주지사 대행은 문화가 인간의 특징과 행동양식을 결정하고 세대간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연과 전시를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개건과 새로운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엔 사할린 주민들이 알렉산드린스크 극장의 배우들의 공연과 에미타췌 박물관 소장품, 러시아 고흐란 재단의 다이아몬드의 전시회를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사할린주 문화 및 고문서부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브이코브 마을에 문화회관, 치르-운브드 마을에 민속센터, 네트라소브카 마을에 문화개발센터를 건축할 계획이다. 스미르니홈스키 문화회관 수리를 비롯해 2012년까지는 21개 문화센터의 개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문화분야의 종사자들 100명과 지도자, 전문가들 1000명을 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참가시켜 자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투자유치컨퍼런스 진행

3월 28일-29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극동개발부,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 국립개발 연구소협회와 사할린주 정부의 주최·주관으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자유치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위 기관들의 전문가, 주내 지방 대표, 극동개발부 세르게이 티르체브 제1부장관 등이 참여했다. 컨퍼런스에는 우수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카투가주(투자유치 우수 순위 13위), 쉐멘주(1위), 타타르스탄공화국(3위) 대표들이 참가하고 자체 지역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극동에 1580개 투자기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지원은 올해 38조 루블리다. 현재 199개의 기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극동지역 경제를 개발에 해마다 6% 정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컨퍼런스 이튿날 행사 참가자들이 선도개발지역 개발지를 시찰한다.

<h2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2>	<h2 style="margin: 0;">2019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지난 26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센터에서 <극장은 착한 세계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대>란 역사다큐 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와 주 역사고문서보관소가 개최했다.

올해는 극장의 해다. 전시회는 19세기 말부터 사할린 극장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과 문서 107점이 출품되었고 여러 연구자료가 사용되었다.

107점의 사진과 문서를 통해 전시에는 유배지인 섬에서 극장문화의 탄생과 1930년대 북사할린(알렉산드롭스크와 오하)에 첫 전문극장 창설, 어린 관객을 위한 극장, 종전 후 사할린의 극장(사할린 드라마극장, 사할린 소련군대극장, 조선극장), 인형극장, 체호브 극장 역사가 반영되었다.

이날 전시 개막식에서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관부 올가 쿠즈네초바 부장, 사할린주 역사고문서보관소 세르게이 차료츠킨 소장, 체호브 극장 타치아나 코르네예와 관장이 이 전시회를 통해 사할린에서 극장들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전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체호브센터가 좋은 전시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 공연프로그램, 팸플릿, 현수막 등만 아니라 게시판에는 많은 정보도 적혀 있다. 이에 전문연구자료들을 사용했다.

나는 동포로서 조선극장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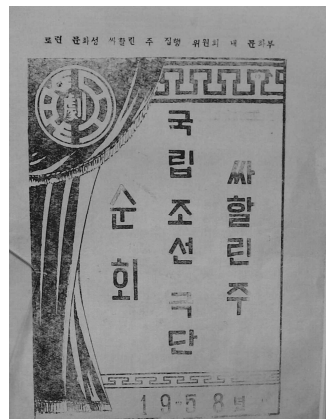
아래에 알게된 정보를 실는다.

1947년에는 사할린주 필하모니아 소속 조선 에스트라다양상בל과 연극단이 생겨 1948년에는 조선양상בל 토대로 하여 조선극장(사할린주 국립조선극단)이 창설되었다. 사할린에는 1946년 7월 1일 당시 한인 동포는 2만7000여 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첫 극장 관장 업무와 나중에는 총감독

사할린 극장 역사에는 조선극단의 역사도 있다

체호브극장에 펼쳐진 역사다큐전시회를 찾아



으로 김기철이 임명되었다. 처음에 배우들은 전에 창고로 쓰던 연습실에서 활동했다. 1949년 11월에 조선극장은 전 일본영화관 건물로 이전했다. 연극단은 대부분 그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파견으로 온 사람과 현지 동포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아마추어 배우들이었다. 전문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전문 예술인 중 하나는 김춘수가 있었다. 나중에 조선극단에 타슈켄트예술극장대학 졸업생들이 입단했다.

1년에 조선극장은 300여 번 공연하고 5-7개의 초연을 선보였다. 상연 목록은 조선 및 러시아 문학작품들로 구성되었다. 공연은 두 개 언어로 상연했다. 조선극장은 두 번 극단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 1957년에는 연극 경연에서 연극 <낙관적 비극>(브세볼로드 위스넵스키 원작, 김중송 번역), 1958년에는 원동 연극 경연에서 연극<승냥이>(유기호, 서만일 각색)과 연극<흥부와 놀부>(태장춘 각색)가 상연되고 <흥부와 놀부>는 1등 상을 받았다. 연출가, 무대 장치 화가, 배우들도 1

급 상장을 받았다. <승냥이>의 여배우도 1급 상장을 받았다.

1958년 중앙아시아 순회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948년 조직된 사할린주 조선극단 폴렉저브는 지난 10년간 창작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극단은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관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그들을 원만히 수용할 목적으로 극부와 악부로 나누어 사업하여 온다.

극단은 10년간에 40여 편의 새 극과 20여 편의 새 팸플릿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도합 3천 번 이상 공연하였으며, 60만 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하였다. 극단은 사할린주 조선 근로자들을 수용하는 한편 하바롭스크 및 블리모리에 변강 조선 근로자들도 수용하고 있다. 극단의 10년간 공연 목록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기타 민주주의 국가 극작가들의 고전, 현대극 작품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그대로 옮김)

순회 공연 목적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새로운 관객들 앞에 자기들이 준비한 연극을 내어놓음으로써 관객들의 엄중하고 정당한 비판과 의견들을 더 많이 접수하여 중앙아시아의 많은 극단 폴렉저브들과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자기의 창작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상연 목록 중에는 <승냥이>, <래일은 우리의 날>(원작 뮌프게, 번역 최길춘), <장화와 홍련>(각색 김해운), <랑반전>(각색 조령출)과 콘서트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조선극장에는 동포들만 아니라 소련지역의 여러 곳에서 사할린으로 온 다른 민족들도 자주 찾았다. 이들에게는 동양의 문화, 화려한 의상, 독특한 조선 민요와 무용 등이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극단은 지방공연도 많이 다녔다. 먼 시골도 찾아가고 별목장, 어로장 등에서도 공연했다. 1959년 7월 1일부터 조선극단은 조선 악단으로 변경되어, 극장은 활동하지 않았다. 1959년 8월에는 조선극장 건물은 조선문화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조선극단 배우 일부는 조선악단에서 활동하고 일부는 카자흐스탄 조선극장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

사실은 조선극단에 대한 정보는 별로 많지 않다. 연구자료도 많이 부족하다. 기사를 준비하는 동안 신문사 사원들도 조선극장에 대해 조금씩 회상했다.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 문화의 꽃을 피우게 했던 조선극단에 대한 숨은 정보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할린 동포의 역사, 동포의 문화를 잊지 맙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이모저모

사할린 아동들, 전국 로봇기술대회에서 수상

3월 20일-22일간 <프로페스트> 또는 <로보페스트>로 알려진 제 9회 전국과학기술축제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전국 로봇기술경연 <러시아의 기술 인재> 최종 단계가 진행되었다.

경기에 <이카르> 사할린지역 단계경연의 우승자 15명이 대표로 출전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규모 축제에서 어린 학생들은 몇몇의 영역에서 독창적인 실력을 발휘했다. 유치원생들을 위한 포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레보두쉬카> 제 4유치원 원생들이 참가했다. 각 연령별 그룹 경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창작회관의 팀과 코르사코브의 유·청소년회관의 팀이 출전했다. 어린 학생들은 로봇기술 부문에서 지식과 실력을 발휘하고 자신들의 기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69개 지역에서 102개의 팀이 몇 개의 상을 두고 결전을 치른 가운데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의 <레보두쉬카> 유치원생들은 <팀별 과제 해결>부문에서 35개 팀들을 제치고 우승했고, 유·청소년회관의 고학년생들은 <이카르 프로에너지> 영역에서 3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이 사할린 학생들의 기획을 높이 평가한 점은 수소 연료 요소 중 하나인 에너지의 두 개 원소를 가진 하이브리드 전기 공급 시스템 모델이다.

Маленькие сахалинцы взяли награды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робототехники

20-22 марта в рамках X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Профест», известного также как «РобоФест», в Москве прошел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ревнования «Инженерные кадры Росс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конкурсе представили 15 человек –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оревнований «ИКаР».

На большом фестивале в Москве дети проявили свои уник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в нескольких категориях. Так, на форуме для дошколят выступи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ого сада № 4 «Лебедушка»,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выступили команды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ДДЮТ и Дома детства и юношества из Корсакова. Ребят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в сфер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 защищали свои проекты.

Несмотря на жесткую конкуренцию – 102 команды из 68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несколько наград. Маленькие сахалинцы из детсада «Лебедушка» победили в номинации «Командное выполнение заданий», обойдя 35 соперников.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из ДДЮТ заняли третье место в категории «ИКаР-профизнергетика». Жюри высоко оценило проект юных островитян – модель гибридной системы электроснабжения с двумя источниками энергии,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 водородный топливный элемент.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착한 참고>를 개설할 예정

극동개발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언급자와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발의가 나왔다. <편안한 집>노인지원 자선단체의 엠게니 스파츠킨 이사장은 상호원조의 특별구역을 만들고자 했다. 활동의 원리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불필요한 물건을 가져오면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져가는 식이다. 이 기획을 실시하기 위해 스파츠킨 이사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와 무상 건물 임대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착한 참고>는 이 기획의 이름이다. 이 특별 참고는 주 중심의 프로젝트 포베다 81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간단히 수리를 마친 후 문을 열게 된다. 이 기획자는 먼 지방에서도 동조자들과 함께 기획하고 지방의 빈곤층에게 무상의 물품을 배포하는 자선시장을 열 계획이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ют «склад добра»

На сайте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явилась инициатива по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пенсионеров и малоимущих. Директор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помощи пожилым людям «Уютный дом» Евгений Стяжкин хочет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зону взаимовыручки. Принцип ее работы очень прост: люди приносят ненужные им вещи, а те, кто в них нуждается, забирает их себе.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н уже договорился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 безвозмездной аренде помещения.

«Склад добра» - такое название получил проект. Находиться он будет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81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Он откроется после небольшого ремонта.

Автор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т также вмест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выезжать в отдаленные села и устраивать там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е ярмарки с бесплатной раздачей вещей нуждающимся.

사할린 및 쿠릴 조산원의 각 산모들에게 신생아용품 선물세트 선사

사할린주 조산원에서 아기를 낳은 각 산모들에게 퇴원 시 신생아를 위한 선물세트를 선사한다. 이 조치는 알레리 리마레코 주지사 대행의 주도로 펼쳐진 가운데 4월 1일부터 산부인과가 있는 각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 정부에 따르면 선물세트에는 주지사의 축하문이 적힌 포창장과 신생아용품들 - 기저귀, 1회용 깔판, 샴푸, 크림, 티슈, 체온계 등 - 20개 용품이 갖춰져 있다. 올 연말까지 이 선물세트는 약 6000여 명의 사할린과 쿠릴에서 신생아를 낳은 산모들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이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할 거라고 관측하고 있다. 선물세트는 가정형편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кам в роддомах начнут дарить наборы для малышей

Каждой матер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выписке из роддома будут вручать подарок для малыша. Такую акцию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1 апреля запустят в каждом медучреждении, где принимают рожениц.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подарочном наборе будут памятный диплом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от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средств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 подгузники, одноразовые пеленки, шампунь, крем, салфетки, термометр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сего около двух десятков предметов.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подарки до конца года вручат примерно 6 тысячам сахалинок и курильчанок - столько младенцев, по прогнозу, появится на свет.

Подарочный набор будет вручаться всем мамам,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териального положения семьи.

(8면에 계속)

오늘부터 본지에 아름다운 한국시에 대한 글을 신습니다. 시평은 작년에 레지던스프로그램으로 사할린을 다녀간 허진원 극작가(한국)가 기고합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골목 / 이병초

흙담 밑을 조옥 따라서 채송화가 피었다
 죽순 토막들이 껌질째 튀군다
 물지게 진 안장다리들이
 싸리울 뚫고 나온 돼지 새끼들에게
 뒤뚱거리고, 돈 좀 달라고 명강 부렸간디
 니미 팔아서 주끄나! 하는 소리 쨍쨍 울리고,
 경숙이 누나 연애편지를 유남이 누나에게 줬다고
 직사하게 옥 언어먹었어도
 아침이면 싸리비질 등살에 흙냄새가 새로웠다
 명수 형이 누렁소 팔아먹고 무릎 꿇고 용서 빌던 골목
 발통기 피땀줄에 손목 바스라진 용남이 삼촌이
 창백하게 들어서던 골목



젖은 짚 태우는 냄새 꿈보리밥 짓는 냄새
 쇠죽 쑤는 냇내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며 웃거티로
 아랫거티로, 구관장으로, 앞시암으로,
 덕호네 집 꼭대기로 땃줄같이 뻗어 간 골목
 뚝개 한 마리가 짓으면 동네 뚝개란 뚝개가 다 갱겨려서
 발 디딜 틈이 없던, 그 통에 '전설 따라 삼천 리'
 유기현 목소리가 팍 찍이던
 저 잡너르 것덜 된장 발라버리자고 입뚱내 튀던 골목
 된장 발라버릴 것덜이 뚝개덜 뿐이것냐고
 누가 또 없는 비료값 물리능갑다고
 애먼 골마리나 추어 쌓던 골목

함 사씨요! 악쓰고 떼쓰는 발밑에 흰 봉투가 깔리고
 갈뚝뚝 땀시 사타구니에 가래뚝 섰다는 형들이
 우당탕탕 지게작대기에 쫓기고,
 꽃상여가 사람들을 즐레즐레 물고나오던 골목
 주 씨네 감꽃들이 주울뚱말뚱 떨어져 있던 골목

"뉴스를 끊고 아침마다 시를 한 편씩 읽었어요. 좋은 시는 연필을 들고 또박또박 필사를 했습니다. 좋았어요, 그 순간이. 앞으로도 삶이 뭔지 철학이 뭔지 도통 알 순 없었지만, 시를 접하려는 제 일상만큼은 바꾸지 않을 생각입니다. 좋은 시와 마주할 때면 그 시인이 마련한 상상을 뛰어 넘기 일쑤입니다. 제 안의 어떤 기억과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아끼는 시집입니다.



이병초 시인의 시들은 정말이지 모든 시를 소개시켜 주고 싶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보물도 이런 보물이 없어요. 부박스러운 언어의 결들을 쫓다 보면 바로 그 지점 '사람들'이 살며시 스쳐 지나가거든요. 이제 잊혀졌을 법한 누군가가 골목 어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느낌이라니.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지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좋은 시를 러시아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2019.03.26.

김포, 사할린 한인 화가 초청 전시회 개최

(재)김포문화재단은 2019년 사할린 한인 김포 영주 귀국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를 맞이하여 사할린 한인 화가 초청 전시회를 김포에서 개최합니다. 김포에는 2009년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300여 명의 동포가 통신 서암에 100여명, 양곡 솔터에 200여명 살고 계시며, 이번 전시는 주명수, 조성용 화가를 초청하여 "또 다른 섬 사할린, 풍경과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준비한 평화민속예술단의 사할린 공연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작년 12월에 사할린에 방문하여 전통 민속 공연과 김포의 평화 문화를 사할린의 우리 한인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올해 이번 전시는 김포로 영주 귀국한 우리의 이웃인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에서의 기억을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로 계획하였다.

한강 하구에 자리하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김포는, 9.19 남북평화 공동선언의 중심 도시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한강 하구 물길 열기와 생태조사,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 디아스포라, 사할린 한인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김포문화재단에서 전했다.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1)거처 찾지 못한 넋] 강제징용 조선인 '아직 눈감지 못했다'

10일 오후 천안 망향의 동산 봉안당인 '망향의 집'에서 한 추모객이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먼 타국에서 숨을 거둔 조선인들의 유골함에 헌화하고 있다. 일제의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전 일본 본토에서 숨진 이들의 유골 177위는 지난 2009~2012년 사이 수습돼 이곳 망향의 집에 안치됐다. /임열수기자



헤아릴 수 없는 유해들 '타국 방치' 망향의 집 안치된 일부도 관심부족 '유골 수습·추모 공간 조성' 필요성 "뚝모아 DMZ에 평화공원을"

여기 우리가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 있다. 백태현, 권화식, 임종완, 장인식, 서경조, 김갑수... 1938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의 강제 징용령으로 끌려가 먼 타국에서 숨을 거둔 조선인들의 이름이다. 불과 8년 사이 국외로 징용된 조선인은 15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 중 얼마가 돌아왔는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은 태평양전쟁 병참기지가 된 아시아 곳곳의 비행장·군수창고·광산에서 쓸쓸히 죽어갔다.

그렇게 숨진 이들의 유골이 지금도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과 일본 등지에 방치돼 있다. 이제 이들을 다시 불러올 때가 됐다.

유골을 봉환하고, 망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초혼(招魂) 후야 역사의 피해자인 조선인들도 맘 편히 눈을 감을 것이다. → 편집자 주

10일 찾은 천안 망향의 동산. 해외 동포들이 문헌 묘역을 지나 10분 정도 언덕을 올라가니 봉안당인 '망향의 집'이 보였다. 몇 송이 국화가 쓸쓸히 망자를 추모하고 있을 뿐, 찾는 이 없는 망향의 집은 스산한 기운만 감돌았다.

봉안당의 몇몇 유골함 앞에는 죽지 수십 년 전에 찍었을 빛 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다. 군모를 쓰거나 제복을 입은 사진 속 주인공들은 대일 항쟁기 일제의 강제 동원령에 의해 징용된 조선인들이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전 일본 본토에서 숨진 이들의 유골 177위는 지난 2009~2012년 사이 수습돼 이곳 망향의 집에 안치됐다.

우여곡절 끝에 유골이나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이들은 아직 안식을 찾지 못했다.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후손들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아직 수습하지 못한 아시아 각지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을 모아 의미 있는 추모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북한이다.

지난해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차 경기도를 찾은 북한 리종혁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제 패망 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 범죄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인 강제 납치 및 연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유해를 모두 찾아 그들의 고향에 안장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와 함께 국제회의를 주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남북이 뜻을 모아 과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을 안치해야 한다. 조선인 피해자들에게 안식을 찾아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만 남은 아버지-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러시아 동포들이 모여 사는 양주시 옥정동에서 이용바우(74) 씨가 러시아로 강제 징용돼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2)막막한 강제징용 희생자 가족] 유골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렇게 어렵나

사진만 남은 아버지-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러시아 동포들이 모여 사는 양주시 옥정동에서 이용바우(74) 씨가 러시아로 강제 징용돼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러시아로 간 아버지 끝내 못돌아와 칠십 평생 그 흔적 찾아 헤매던 딸 러근무지 기록 확인한 것이 '한계' 정부 도움 간절 '외교창구' 못찾아

"러시아로 강제 징용돼 숨진 아버지...유골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7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ТЕАТР И НЕ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 А.П. Чехова открылась историко-документ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Театр – это такая кафедра, с которой можно много сказать миру добра». Все экспонаты выстав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сотрудник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вящены истории островных театров.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экспонатами «театральной кафедры» могут все, приходящие на раз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театральный центр зрители.

Во время открытия выставки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 том, как формировалась концепция, как собирались и подбирались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как сотрудничали между собой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как развивалась театральная жизнь «изнутри». Копии разных фото-иллюстраций выставки содержат выдержки из документов XX века, снимки актеров, которые играли популярные в прошлом столетии и интересные сегодня драмы. Благодаря погружению в прошлое можно узнать, как развивались и как умирали театральные труппы острова. Яркая страница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атра – эт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ех людях, которые продвигали сахалинское театр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В сплетении разных судеб и событий отдельную страницу занимает существовавший в 1940-50-е годы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театр, спектакли которого ш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репертуар труппы наряду с корейскими драмами, включалась и русская классика. Архив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сохранился фрагментарно, но даже какие-то небольшие эпизоды из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иде-



тельствуют о высоком мастерстве островных актеров. Известно, что корейские актеры с блеском играли в написанной в 1932 году «Оптим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Всеволода Вишневского. Когда-то с интересом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смотрели такие драматичес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к «Волки» Ю Ки Хо или «Хынбу и Нольбу» Тхэ Дян Чуна.

Быть причастной к прекрасному миру театра интересно не только в качестве зрителя, но и в качестве наблюдателя за историей остров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Работа выставки продлится до конца следующего месяца и многие из островитян могут почерпнуть важные сведения из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а также зародившегос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и продолжающего жить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го театра.

Елизавета Мальцева, СаХГУ
Фото: Ли Е Сик

БАСНИ ИВАНА КРЫЛОВА В КОРЕЕ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исполнилось 250 лет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русского поэта, драматурга и публициста Ивана Крылова. В самом конце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рошел круглый стол «Поэт и мудрец слились в нем воедино». В основу названия науч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легли слова Николая Гоголя об Иване Крылове.

Еще при жизни Крылова его басни переводились на разные европейские языки, однако открытие наследия литератора в Корее несколько запоздало. Первые серьезные переводы знаменитых русских басен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явились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О том, кто и когда в XXI веке переводил произведения Крылова для корейских читателей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рассказала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сейчас слушатель курс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Ли Сумин. Предлагае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фрагментами из написанног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доклада студентки.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професс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XXI столетии басни Ивана Крылова издавались под разными названиями: «Синица» (2008), «Слон на воеводстве» (2008), «Басни Крылова, сияющие как драгоценность моего сердца» (2013). В 2014 году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самая большая книга стихотворений Ивана Крылова «Басни, которые пересекают пустыню моего сердца». В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й книге рекламе сообщается следующее:

- «Книга, которая наполнит вашу душу».
- «Книга, которая обогатит ваш внутренний мир».
- «Книга, которая очистит вашу душу».
- «Книг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вам понять, в чем смысл жизни».
- «Книг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вам обрести осознание многих вещей».
- «Книга,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широко открыть глаза вашей души».

И как необходимое следствие та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книги – это призы к тому, чтобы современные читатели обязательн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этой книгой, дающей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мир по-новому.

В книге переводов басен Ивана Крылова представлены так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ак «Волк и лисица», «Мартышка и очки», «Свинья под дубом», «Волк и журавль» «Лисица и виноград», «Червонец» и другие. Переводчиком книги выступила Сок Ёндзун (석영중), которая родилась в 1959 году. Сок Ёндзун –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писатель и переводчик. В 2010 году она стала президентом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Кроме басен Ивана Крылова, корейская славистка перевела такие книги, как «Капитанская дочка»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Бедные люди» Фёдора Достоевского, а также «Первая ступень» Льва Толстого. Известна Сок Ёндзун и оригинальной книгой «Класс перевода для молодежи» (2011).

Переведены басни Крылова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не стихами, а прозой. Вот, например, как выглядит стихотворение «Червоне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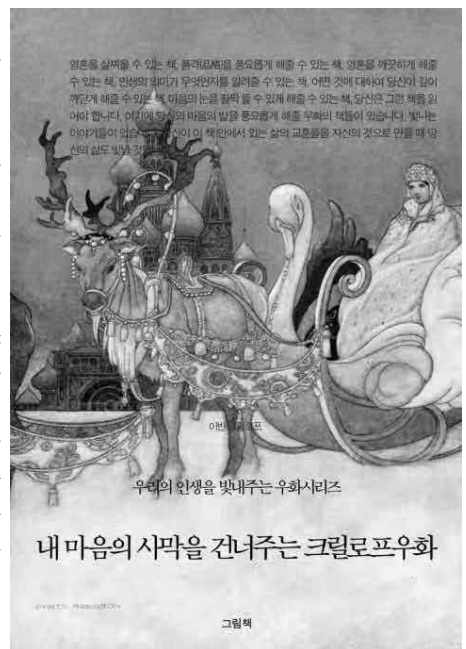
어떤 멍청한 농부가 땅에 떨어진 금화를 주웠다. 그 금화는 먼지를 뒤집어써서 무척 더러워져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금화를 보고 금화를 자기에게 주면 5가페이카 동전을 세 양동이 분량만큼 주겠다고 제안했다. 농부는 생각했다.

"잠깐만 그것의 두 배는 내 놓도록 해야지. 이 금화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 만한 방법이 생각났어."

그래서 농부는 모래와 자갈과 석회석을 가져오고 벽돌을 깨트려 작업에 착수했다. 있는 힘을 다 발휘하여 농부는 금화를 벽돌로 연마하고 자갈로 심하게 비벼대고 모래와 석회석으로 문질렀다. 금화를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금화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금화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에, 금화는 그 값어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Ли Сумин



Конференция дл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темой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конференцию-конструктор",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практических семинаров, консультаций, тренингов и мини-презентаций.

Как рас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Наталья Лиеде, главной целью мероприятия явля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я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его идей и ценностей, привлечени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й аудитории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по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и социального бизнес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виз: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бизнес от сердца".

— Мы ожидаем, что мероприятие будет насыщенным и

интересным, в программе — встречи с социальны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социаль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тартапами, с творческими и активными людьми, консультации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ена объявлений, контактов, приглашений",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собственно конференция" в формате полилога,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Лиеде и коротко разъяснила, чем вообще-то соци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ого. —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находится на стыке коммерческого и не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екторов — некая гибридная форма организации — это особый тип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кольку речь идет о мотивации и культуре, отличить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от обычного бизнесмена зачастую непросто: едва ли не каж-

дому бизнесмену присуща социаль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о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имеет место тогда,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эт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переходит в качество и определяет выбор приоритетов в том, что и как производить и продавать.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обе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будет уделено фильму о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Сахалина "Дело жизни. Сахалин" "Лаборатории социального кино. "III сектор", продюсер фильма Никита Тихонов-Рау, режиссёр Светлана Горло, Москва. Герои фильма — сахалинцы, первые соци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первопроходцы.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31 марта в 11 часов.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 Дом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Елена Герцен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Желающих провести весело время, интересно пообщаться приглашают в КЛУБ 60+.

30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ООСК состоится первое заседание Клуба 60+.

Начало в 12.00. В программе: песни под караоке, танцы и чаепитие.

Инициативная групп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елегация российских сенаторов посетила КНДР

Россия и КНДР продолжают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С 16 по 21 марта в Пхеньяне побывала делегац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верхней палаты парламента)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заключения первого соглашения о культур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глава делега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тета по федератив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местному самоуправлению и делам Севера Олег Мельнич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визит был посвящён обсужд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В частности,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моста на границе России и КНДР, образован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дом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хода на рубль в качестве расчётной единицы с Россией.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есть сферы, которые остаются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ыми: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парламент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напомнил Олег Мельниченко.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на середину апреля намечен визит в КНДР делегации Госдумы России, 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парламентарии совершат визит в Россию до конца года.

РК выделит 2,7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контакты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выделить 2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из бюджета фонда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необходимог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стреч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й. Об этом 21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Эти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ремонт места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К,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Севера, а также на проведение анализа ДНК в рамках сохранения архивов о членах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Чхве Сон Хи: Президент США положительно смотрит на смягчение санкций при условии Snap back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в ход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а в Ханое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положительную реакцию на возможность смягчения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при условии их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 случае, если Север нарушит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Такой подход назвали Snap back. Об этом, по некоторым данным, она сообщила 15 мар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иностранных посольств в Пхеньяне. 26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 Ёхнап представило текст выступления Чхве Сон Хи с вышеуказан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По её словам, в Ханое Север сделал Дональду Трампу предложение о смягчении санкций. В ответ глава Белого дома не исключил возможности договориться, если в проект Севера будет включён пункт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всех санкций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Пхеньяном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днако, отметила Чхве Сон Хи,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и советник президент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жон Болтон,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чувствами недоверия и враждебности, создавали препятствия в построении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диалог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 Ханое не удалось достичь значим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о данным СМИ, Чхве Сон Хи также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озвалась о Дональде Трампе, отметив, что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сохраняют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демонстрируя удивительную совместимость.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становлен льготный тариф на мобильную связь

В РК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становлен новый льготный тариф на безлимитную мобильную связь в размере 33 тыс. вон или 29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Об этом 26 марта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и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Есл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использует личный телефонный аппарат, то он может получить 25-процентную скидку. В случа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бюджетного тарифа «альталь фон» услуги связи будут обходиться ещё дешевле – от 9 долларов. Такой тариф представлен виртуальными операторами мобильной связи, арендующими линии у трёх основных компаний-операторов.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граниченный перечень услуг - безлимитные разговоры и обмен смс-сообщениям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с апрел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м режиме было разрешен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телефона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Ранее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ос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го тарифа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учитывающего их потребности и особенности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Между тем, в некоторых кругах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ышеуказанный льготный тариф всё же является неоправданно дорогим, учитывая, чт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ог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телефоном максимум четыре часа в сутки. (RKI)

Выбор между "вольсе" и "чонсе"

За свою жизнь корейцы успевают сменить много квартир. Если вы спросите у 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жанина про дом, "где он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ему будет сложно ответить. Здесь считается нормальным менять жильё раз в два-три года, а то и чаще,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Это значит, что рынок аренды жилья хорошо развит.

Стандартный срок долгосрочной аренды жилой квартиры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ставляет один или два года. При этом возможны две системы аренды,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ся "вольсе" и "чонсе". Первая подразумевает внесение залога в размере стоимости нескольких месяцев аренды, а также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хозяевам собственно арендной платы. Залог возвращают, когда выезжаете из квартиры. В Сеуле арендная плата за квартиру в "многоэтажке" обычно начинается от 400-500 и доходит до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месяц.

"Чонсе" - не очень известная в России система. Вы вносите весьма крупный залог, размер которого со-

ставляет значительную долю стоимости квартиры. Если переводить в доллары США, то счет здесь идет на сотни тысяч. Но при этом вы ничего не платите в качестве обычной арендной платы. То есть крупный залог позволяет жить практически бесплатно. Выгода для хозяев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они кладут эти деньги на депозит и получают с них проценты. Это и составляет их доход.

Правд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Корее учетная ставка Центробанка невысока, а потому все больше корейцев при сдаче квартиры предпочитают искать арендаторов, которые готовы снимать жилье по системе "вольсе" - с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им залогом, но и пр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й арендной плате.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краткосрочной и посуточной аренды жилья, она тоже получила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Корее. При этом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известные во всем мире онлайн-площадки и сервисы типа Airbnb, Booking, Agoda и други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еул)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и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7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ФЕРЕНЦИЯ-КОНСТРУКТОР - 2019

31 МАРТА

ПРИГЛАШАЕМ!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НАЧАЛО В 11-00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кому интересна тема соци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Запись на мастер-классы!!!

«Клуб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АСП приглашает на «конференцию-конструктор». Это сочетание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тов мероприятий: форума, воркшопа, практических семинаров, консультаций, тренингов и мини-презентаций



ЦЕНТРАЛЬНОЕ СОБЫТИЕ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ентация-показ фильма о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ДЕЛО ЖИЗНИ. САХАЛИН»
Лаборатории социального кино, г. Москва. Авторы – Никита Тихонов-Рау и Светлана Горло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бизнес от сердца»

Запись и вопросы по телефону/вотсап:
Марина - 27-87-32/
+7 914 757 8732
Наталья - 48-88-65/
+ 7 962 154 8865
и по e-mail: liede@mail.ru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Дом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83

с 11-00 до 12-30	
Фойе	Кабинет №16
- Воркшоп/ выставка/ - Консультации - «Стена объявлений, контактов, приглашений» - Мастер-класс «Нейрографика»	Мастер-класс, показательный урок и мини-презентации программ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КБ-Бридж» (И/П Ким А.Д.)
11-00 - «Эффективность рече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 Елена Сверкунова, ст.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1-40 - Как стать победителем» - Артур Мантуров, ООО «Спортпроект» (батуный парк «Портал») (И/П Ким А.Д.) 12-00-«Йога для всех», Игорь Таушев, преподаватель Центра йоги и ЛФК «Лотос»	
с 12-30 до 14-00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онференция «Социальн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СП) – бизнес от сердца» Модераторы – Наталья Лиэде и Юрий Ревин (АСП)	
12-30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инятия закона о СП»	Яна Бобкова, аспирант СахГУ
12-40 Презентация фильма «Дело жизни. Сахалин»	Н. Лиэде (АСП)
13-30 «СП в России. Зарубежный опыт»	Ю. Ревин, Виктория Бя (АСП)
13-50 «Таои 5 минут»	
13-50 «Вопросы – ответы. Предлож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ОТКРЫТОЕ ПЕРВЕН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УТЦ «Восток»
пр-кт Мира, 501
(вход свободный)

14/04

начало в 10-00

Организ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спортив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 25 25 58
📧 sakhalin_ssireum_federation
sakhalin@ssireum.ru
🌐 www.ssireum.ru



Партнеры: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рабо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областном театре кукол. С праздни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трасли, в том числе и ветеранов, поздрави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ручил награды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кам различ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хи, Тымовска, Смирных.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отметил, что культура – это важнейшая часть жизни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Именно она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яет характер и поступки людей, позволяет передавать от поколения к поколению традиционные ценности: эстетические, моральные, духовные, помогает сохранять самобытность и в то же время – развиваться дальше, быть частью миров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нашей области происходит мног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Активно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и реконструируются старые здания.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выходят выставки и гастрол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общ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артистов Александринского театр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ыставка муз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из Эрмитажа и Алмазного фонда Гохрана Росси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до конца года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Быков,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селе Чир-Унвд, центра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селе Некрасовка.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ремонт Буюкловского сель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Всего к 2021 году будет проведен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21 объекта куль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ервого в истории област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самые круп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том числе симфонические оркестр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людям. За следующие два года на курсы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и обуче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отправить около 100 работников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более 1000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75 театралов повысят квалификацию в ведущих вузах — Гнесинке и Театральном институте имени Щукина. Первые 15 поедут в Гнесинку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В честь праздника награды из рук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лучили сотрудники ряда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Почетное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воено заместителю директора по науке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Татьяне Арентовой, директор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школы города Поронайска Галимжану Иканову, режиссеру любительского театра охинского Дворца культуры Ларисе Невзоровой, директору смирныховской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й библиотечной системы Светлане Кан. Почетная грамо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ручена заведующему учебной частью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 1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нине Гимро, заведующему отделом крае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Наталье Пригаро, начальнику управл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ым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Дмитрию Смекалову.

Назначен новый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будет исполнять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родился в городе Грозный 14 мая 1976 года. С 1997 по 1999 годы проходил срочную службу в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Ф.

О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инженера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Промышленное и гражданск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Моск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шей школе бизнеса получ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Мастер делового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я». Также проше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строитель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вою карьеру Вячеслав Владимирович начал в ООО «РК Полюс» (Москва) в качестве инженера-проектировщика. Затем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инженера и главного инженера на московс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ЗАО «Теплоиндустрия» и ЗАО «Иста-Системс-П».

В ООО «Горпожтехник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ел путь от главного инженера проекта до вице-президен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Затем стал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управления проектами в ОАО «Энергостройинвест-Холдинг» (Москва).

В 2008 году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тал помощником директора ОАО «Нижегородская инжинир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Атомэнергопроект». Затем возглавил отделение проектно-конструкторской информации филиала «Энергоатомпроект» – ОАО «Концерн Росэнергоатом».

С 2010 по 2018 годы трудился в АО «Инжиниринговая компания «АСЭ» в Нижнем Новгороде, где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инженера по инновационному проектированию, заместителя директора московского филиала, директора по системной инженери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Перед назначением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Владимирович руководил департамен-

том по системной инженерии и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дирекции по техн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АО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в Москве.

Женат, имеет двоих дочер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та новая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чреждени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поручение да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49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позволят реш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блему нехватки медицинских площадей,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амках недавних рабочих поездок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лично убедился, что многие здания,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спользуются в сфере медицины, изношены и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бованиям времени.

- Данную ситуацию нужно кардинально менять. Медицинскому персоналу необходимы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работы, а пациентам – комфортная сред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еред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программ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 2024 года заложены 49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медицинской сферы. Например, это новый корпус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инфе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уже много лет нуждается в новом помещении. По санитарным нормам это должно быть отдельно стоящее здание. Наконец, этот вопрос сдвинулся с мертвой точки. Уже готов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можем переехать и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отвечающих всем требования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отметил главный врач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Юрий Баскаков.

Новые корпуса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также получат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й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ородская больница имени Ф.С. Анкудинова, областная клиническая больница, противотуберкулезный диспансер, Холмская,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ая, Долинская районные больницы.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есколько объектов решено строить полностью, не ограничиваясь отдельными корпусами. Например, для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требуется большое, современное здание. В имеющихся условиях невоз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хирургическую, травматологическую и другие виды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Новое здание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мног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диагностикой, лечением и комфортным размещением де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начнетс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Также с нуля будет возводиться здания для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и Южно-Курильске.

Кроме того, в разны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бласт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остроить 11 новых поликлиник. Продолжится возведение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в малых селах. В частности – в Совхозн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где проживает 120 человек,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ФАП) отсутствует около 30 лет.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люди обращаются в районный центр или соседнее село.

- До ближайшей амбулатории – 8 километров. Это небольшое расстояние, но в период распутицы путь становится дорогой жизни. А если человек болен, ему нужна сроч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испытание. До ЦРБ из села около 40 километров. Жители давно ждут свой ФАП. Это позволит решить многие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 медосмотр провести, вакцинацию, дать направление к узкому специалисту или оказать экстренную помощь, - сообщи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Холмской ЦРБ Светлана Мищенко.

До конца года новые ФАПы должны открыться в селах Зональное, Красная Тынь, Хоз, Совхозное, Песчанское, Восточка, Колхозное, начнут работать амбулатории в Стародубском и Мгач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градил самые эффективные муниципалите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учшие райцентры получили от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денежные гранты,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ертификат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ручил руководителям район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Для расчета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используется специальный перечень показателей. В минувшем году он насчитывал более 100 пунктов. Среди них – число детей, стоящих в очереди в детские сады, объем привлече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количество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общая площадь жилых помещений, введенная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за год, и ряд других.

Общая сумма грантов составляет 1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занявшее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лучает 50% от суммы,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 30% и 20%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 Эти деньги позволят решить ряд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Надеемся, что вы и дальше будете держать высокую планку и подавать пример эффек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воим коллега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региона лучшей в 2018 году признана рабо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ручил серти-

фикат на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эру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ергею Надсадину. Второе место и 3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лучил Поронай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Замкнул тройку лидеров по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Его глав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на 2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стабильный рост по многим показателям.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х событий – реконструкция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5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еревыполнение плана по вводу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жилья.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 системе газоснабжения подключили на 770 абон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планировалось, а также построили 6 спортивных объектов.

- Наша задача создав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в городе. Мы идем к этой цели всей команд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Нынешний результат, в том числе основан на успешных наработках, накопленных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 сказал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ыиг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пойду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новых планов по развит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ронайского округа также стабильно показывает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годом ранее муниципалитет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этот раз району удалось перевыполнить показатели по сельскому хозяйству и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объектов торговли –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Кроме того, сразу два проекта от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областного проекта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в райцентре появится стадион, а в селе Восток – лыже-роллерная трасса. Выигранные деньги руководство района планирует направить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В невели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тарались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всем показателям оценк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особого успеха в развитии оказ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росте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й в бюджет района, организации летнего отдыха школьников.

-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уверен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это и позволило нам получить грант. Средства планируем потратить на развити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повышение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евеличан,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лексей Шабельник.

Поздравляя победителе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чт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еред районными администрациями стоят серьезные задачи по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и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что они будут решены.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впервые пройдет кинофестиваль для молодежи

С 23 по 30 августа в девятый раз состои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С 16 по 19 августа на фестивале «Игра света», покажут фильмы, созданные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до 17 лет.

Детали масштаб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суждались на встрече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ого продюсера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актера и режиссера Алексея Аграновича.

- Каждый год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области ждут большого праздника кино. «Край света»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самые заметные новинки кино России, Азии и Европы,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ведущими актерами, режиссерами, сценаристами. За девять л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орума стал одним из брендов региона и выдел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кинокарте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мир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инициатив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го ярк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ведение первого молодеж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Почет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кинофорума станет актер, режиссер, продюсер Данила Козловский. Он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уть к мечте», где успешные молодые люди из разных сфер будут показывать кино и 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историями.

«Игру света» с помощью кураторов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юные сахалинцы – ученики мастерских, созданных в рамках «Края света». Во время прошлых фестивалей ребята из кино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научились писать сценарии, освоили съемку, монтаж, работу со светом и звуком. Вместе с продюсерской мастерской «Успех» и мастерской дизайнера «24/7»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освоить основы всего цикла кино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изы молодежного фестиваля разыграют российские и зарубежные фильмы, созданные авторами до 17 лет. Помимо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внеконкурсная.

- Задумана программа «Диалог поколений». Думаю, что наши юн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ее переименуют, потому что название совсем не подростковое,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 Наши студенты придут к своим родителям и спросят, какие фильмы сильнее всего повлияли на них. Киноленты, которые назовут большинство взрослых, будут выставлены на голосование в Интернете, а победителей мы покажем на большом экране. Будет и обратная история – с фильмами, которые дети ходят показать взрослым.

Также на «Игре света» покажут японскую анимацию, представят музы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популярным сегодня течением k-pop.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①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모를소냐"

정치적 각성한 여성들 남녀평등 · 국채보상 · 항일투쟁에 앞장서

※ 편집자주 = 3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제2관에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 서울전'이 개막합니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여성독립운동가 공감·기억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마련한 전시입니다. 연합뉴스는 각종 사진과 자료 등과 더불어 전시되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 4개를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부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모를소냐'에서는 구한말부터 '여권통문' 발표(1898)에 뒤이어 의병운동 참여(1896, 1905, 1907), 국채보상운동 주도(1907) 등을 통해 정치적 각성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전면에 나선 여성들을 볼 수 있다.

1898년 서울 북촌의 양반 여성인 이소사·김소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여학교 실시 통문'(통칭 여권통문)은 한국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서로 불린다.

황성신문과 독립신문 보도에 따르면 300여 명의 여성이 참여한 여권통문은 여성의 '정치참여권'을 비롯해 남성과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경제활동 참여권',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힌 '평등교육권'을 담았다.

이를 계기로 최초의 여성단체가 결성됐고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성학교가 들어서게 됐다. 한국 여성사의 큰 변곡점이 됐던 여권통문은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 나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초 여성 의병 지도자 윤희순과 '안사람 의병가'[국립여성사전시관 제공]

구한말 시아버지였던 유홍석 의병장을 따라 독립운동에 나선 윤희순(1860~1935)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 지도자다.

그는 1895년 전국적인 항일운동인 을미의병 때 유홍석을 비롯한 가문이 의병에 가담하자 뛰어들어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안사람 의병가' 등을 지었다.

"아무리 왜놈들이 강성한들 우리들도 못쳐지면 왜놈잡기 쉬울세라.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사랑 모를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없이 소용있냐.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가사의 내용에서 보듯 그는 당시 가사만 전담했던 여성에게 구국운동을 일깨우고 항일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여성의 자각에 앞장섰다.

1907년에는 30여 명으로 구성된 '여성의병'을 조직해 취사와 세탁 등 의병을 돕거나 탄약제조소를 운영했고 때론 남장하고 정보 수집에 나서기도 했다.

경술국치 후인 1911년에는 중국으로 망명해 항일 선전, 독립자금 모금, 민족학교 설립 활동 등을 펼쳤고 1915년에는 중국인과 조선인의 항일 연대단체인 무순조선독립단을 조직하고 조선독립단학교를 설립했다.

국내서 15년 해외에서 25년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그는 일본 헌병에 체포된 후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5년 사망했다. 우리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83년 대통령표창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조마리아 여사와 안중근 여성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사진 우측)의 모친 조마리아 [국가보훈처 제공]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분노를 짊어지고 있다. 항소하는 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나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 하고 받은 형이나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1909년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 초대통감을 암살해 사형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인 조마리아(1862~1927)는 "당당히 죽으라"며 새 하얀 수의를 지어 보냈다.

같은 무관 집안의 안태훈과 결혼한 그는 안중근, 안성녀, 안정근, 안공근 등 3남 1녀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를 독립운동의 제단에 바친 장한 어머니였다.

1907년 대구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자녀들과 함께 의연금을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안중근 사망 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 각지를 돌며 동포들의 독립의식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강연 활동을 펼쳤다.

1919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둘째와 셋째 등이 가담했고 그는 임정경제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포 간 갈등이나 분란 시 중재 역할을 도맡아 했다. 당시 그는 김구의 모친 광낙원과 함께 상해 독립운동 진영의 안주인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 '여중군자' '여걸'로 불리기도 했다.

(계속)

[우리말로 깨달대]

자존심과 자존감

종교에서 말하는 '유아독존(唯我獨尊)'이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 자존(自尊)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귀한 존재이지요.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존재이니 귀한 겁니다. 드문 것이 귀한 것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나'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정말 귀합니까?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자존심(自尊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니 좋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자존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자존심은 좀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척의 느낌으로도 사용합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라는 표현에서는 너 같은 게 무슨 자존심이 있는가 하는 느낌을 드러냅니다. 무시이고 멸시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했다는 표현도 합니다. 이 말도 이상합니다. 자존심이 무슨 명예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존심은 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존심이 있어야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래야 누가 나를 무시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존심은 잘난 척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잘 살아야겠지요. 하루를 귀하게 살다보면 더 자존심이 생길 겁니다. 엉망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자존감(自尊心)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특별히 다른 개념은 아닐 텐데 자존심이 부정적으로 자주 쓰이니 자존감을 대신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존감과 같이 쓰는 표현으로는 슬프게도 '떨어지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높이는 말 앞에 대부분 '떨어져 있으니'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대입니다. 외모가 중요해지면서 타고난 자신의 모습에서 자존감을 잃습니다. 어쩌면 가장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자신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자존감을 잃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기운 없어 합니다. 옷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가방 때문에 자존감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쉽게 바꿀 수 없는 나의 현실입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친구나 선생님은 내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콧속 찌르기도 합니다. 공부를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친구와 잘 못 어울리면 따돌림을 당합니다. 특이한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학교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회사나 사회에 나가면 자존감은 도대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자존감은 사치스런 단어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일까요? 자존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들입니다. 저마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나 자존심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 깨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진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은 자존심, 자존감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귀합니까? 정말 이 세상 모두가 귀하게 느껴집니까?

(출처: 재외동포신문)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 · (1)거처 찾지 못한 뉘] 강제징용 조선인 '아직 눈감지 못했다'

(3면의 계속)

1943년생인 신윤순(76·여)씨는 아버지 신경철 씨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1943년 러시아로 강제 징용간 아버지가 끝내 모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칠십 평생 아버지를 찾아 해맨 신 씨는 지난 2013년에야 겨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았다.

신 씨는 "인천 동구에 1950년에 아버지와 같이 벌목장에서 일하신 분이 영구 귀국해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으로부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곧장 러시아로 갔다"고 말했다.

이후 수소문 끝에 러시아 포르나이스크(Pornaysk) 근로연금 공단에서 아버지 신씨가 1949년에서 1953년 사이 근무한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신 씨는 "49년부터 51년까지 근무했고 6개월 휴가를 갔다는 기록을 찾는데 현지에서 꼬박 20일이 걸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은 53년 3월 30일 휴가를 갔다는 것이다.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그 정도였다"고 했다.

신 씨는 간절히 정부의 도움을 원했지만, 이런 민원을 받아줄 창구를 찾지 못했다. 결국 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매주 하루씩 청와대 앞에서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 씨와 같은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정부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교 협상을 할 창구가 있어야 국외에서 숨진 강제 동원 피해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기록을 확인하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일항쟁기 위원회 부활을 원하는 건, 비단 신 씨 뿐만이 아니다. 양주에 집단으로 거주 중인 러시아 영구 귀국 동포들도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통한 피해 조사와 지원을 원하고 있다.

러시아에 거주하다 지난 2014년 영구 귀국한 김정희(73·여·양주시 옥정동)씨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이제 70대 고령이 됐다. 더 늦기 전에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통해 명확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인일보, 2019.03.11)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러시아 주민, 러시아의 문화 수도를 발표

러시아의 문화 근로자 날을 앞두고 Tvil.ru 주거지 예약 서비스 전문가들은 소셜네트워크에서 여론조사를 하여 러시아 주민들이 러시아 문화의 수도로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중 상트페테르부르가 최고 점수를 받았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네와의 도시(상트페테르부르그 의미함)는 응답자에게서 74% 표를 얻었다. 2위는 카잔으로 문화의 수도로서 7%가 응답, 3위는 야로슬라블리가 5%를 차지했다. 5 위의 우수 순위에는 예카제린부르그가 3,5%, 모스크바와 니즈니 뇨고로드가 각각 3%씩 얻어 5위 안에 들었다.

Россияне назвали культурную столицу России

Специалисты сервиса бронирования жилья Tvil.ru ко Дню работника культуры провели опрос в соцсетях и выяснили, какой город россияне считают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ей России.

Рейтинг возглавил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за город на Неве проголосовало большинство опрошенных — 74%.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Казань. Этот город назвали культурной столицей 7% респондентов.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занял Ярославль — 5% голосов.

В ТОП-5 городов также вошли Екатеринбург (3,5%), Москва и 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по 3%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러시아통계청, 극동지역 공무원 임금 밝혀

러시아 통계청이 러시아 지역들의 집행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극동지역 공무원들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지역은 추코트카 자치구로 기록되었다.

2018년에 추코트카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12만 7000루블리인데 이는 2017년에 비해 0.2% 하락. 2

위는 하바롭스크 변경으로 공무원들 월평균 임금은 11만9200루블리(2017년에 비해 7% 상승)를 받았다. 3위 캄차트카 지역은 11만6200루블리(24,3% 증가)이고 마가단주와 사할린주의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10만 4000루블리, 야쿠치아는 9만5400루블리, 프리모리예 지 지역은 7만7600루블리(23,2% 상승)다.

낮은 임금순위에서는 유태인자치주 공무원들이 가장 낮았다. 공무원들의 임금은 2018년에 4만2800루블리에 해당했고 자바이카일리에지역 공무원은 4만 9300루블리, 부라치아 공화국은 5만4000루블리를 받았다.

2018년에 전국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6만5900루블리에 해당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12% 상승했다.

Росстат подсчитал зарплаты чиновни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тат подсчитал средню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сотрудников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По данным ведомства, самая высокая зарплата чиновни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Чукотс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В 2018 среднемесечная зарплата госслужащего на Чукотке составила 127 тысяч рублей, что на 0,2% меньше, чем в 2017 году.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где чиновники зарабатывали в среднем 119,2 тысячи рублей (+7%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 годом).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занял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 116,2 тысячи рублей (+24,3%).

Уровень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госслужащих в Магаданской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ях составил 104 тысячи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Якутии — 95,4 тысячи рублей. За ними следует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77,6 тысячи рублей (+23,2%).

Зарплатный антирейтинг возглавили чиновники Еврейской АО. Из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2018 году составляла 42,8 тысячи рублей. Также невысокие зарплаты оказались у госслужащих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 49,3 тысячи рублей, и Бурятии — 54 тысячи рублей.

Отметим, в 2018 году средня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сотрудников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о России составила 65,9 тысячи рублей — на 12, % выше показателя 2017 года (сahaslin.ru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사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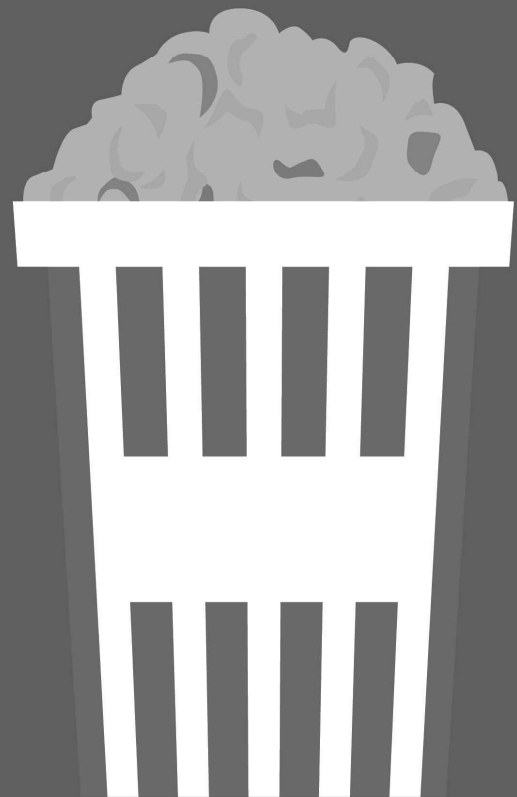
콩쿠르조직위원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